

여성마약중독자의 회복과 재발경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pse and Recovery Experience of Female Drug Addicts

김진숙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Jin-Sook Kim(kjs324@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여성마약중독자의 단약 후 유지·재발 및 회복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약에 중독된 이후 재발을 반복하다가 회복중인 여성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원자료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대부분 여성참여자들은 성장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냉대를 겪었다. 어려운 현실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또는 호기심 때문에 마약에 빠져들었다. 마약 살 돈을 벌기 위해 유흥업소를 전전하였고 판매상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랜기간 동안 마약의 늪에 갇혀 있었다. 이들이 선택한 마약은 극한 성적쾌락을 주었고 마약에 길들여진 몸으로 인해 쉽게 회복이 어려웠다. 재발이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은 더 피폐해졌다.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트라우마는 마약중독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종교적 회심 또는 실존적 각성, 사회적 지지는 회복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삶의 재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성과 실존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치료접근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마약중독 | 여성 | 회복 | 재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pecifically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maintenance, relapse, and recovery after the abstinence of female drug addicts. For such purpose, ten females who repeated drug addiction and are currently in recovery were selected as the study participants to carry out in-depth interviews. The original material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s of Giorgi.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most participants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inhospitable treatment in their childhood. They began taking drugs as an escape from their difficult realities or out of curiosity and worked at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living as a drug addict for a long time. Drugs gave them extreme sexual pleasure and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recover as their body became dependent on drugs. However, as they experienced religious awakening or existential existence, they gained an opportunity for newly understanding themselves. Social support was an essential resource for their recovery. However, various kinds of trauma that they experienced in their lives acted as a factor to worsen drug addic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study proposes spirituality, actual programs, and trauma treatment approach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restructuring of life.

■ keyword : | Drug Addicts | Female | Relapse | Recovery |

* 이 논문은 2018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28407).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A2A01028407)

접수일자 : 2020년 03월 10일

수정일자 : 2020년 03월 31일

심사완료일 : 2020년 03월 31일

교신저자 : 김진숙, e-mail : kjs324@hanmail.net

I. 서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잘 알려져 왔으나 마약류 범죄 계수 20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마약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다[1]. 이제 마약은 특정계층에서 벗어나 청소년, 회사원, 주부 등 일반인으로써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성인의 수를 최대 22만명까지 추정하고 있다[2][3]. 마약중독에 빠지면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마약문제는 개인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가족, 지역사회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중독재활영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재발의 예방과 회복[4-6]이라고 볼 수 있다. 마약중독자의 60% 정도가 치료 후 1개월에서 3개월에서 재발하며 6개월 이후에는 적어도 80% 이상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대다수 중독연구에서는 재발을 부정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실패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높다[8][9]. 재발은 불안, 우울, 무기력, 강박 등의 부정적 정서가 동반되고 다양한 문제행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독자와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마약중독자들은 현재 단약을 하고 있더라도 외부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부정적인 존재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중독자들은 재발이란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단이라고 회고하기도 한다[10]. 이와 같이 어찌보면 단약은 미래의 가능성과 맞닿아 있고 금단증상과 재발은 새로운 실존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의례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재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마약중독자를 영원한 관리대상으로 또는 회복의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마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마약중독자를 엄벌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사범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화가 되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낙인을 받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할 확률이 높다[2].

마약중독 회복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관점에서 회복과 재발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중독재활영역에서는 질병모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회복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1]. 회복과 재발은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규정할 수 없고 끊임없는 역동적인 과정이자 순환론적 특성을 갖고 있다[12]. 회복경험은 삶의 연속선상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13]이다. 또한 재발도 이전으로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성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중독자의 회복은 단순히 마약을 끊는 것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자기존재 양식을 재구성하여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내적 의지와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15]. 이와 같이 회복은 새로운 실존수행을 떠맡는 과정으로서 치명적인 중독의 매력을 향해 치달지만 정상적인 자기를 향해 줄달음질 하는 이중의 구도속에 위치해 있고 이를 상처입은 존재로서의 역설(Paradox of wounded being)로 설명할 수 있다[6][16].

마약과 관련된 기존 문헌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여성 마약중독자의 재발과 회복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사회적 맥락내에서 여성이 갖는 독특한 마약중독양상과 재발, 회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여성 마약중독 회복자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미 도박연구에서는 여성도박자들이 남성도박자들과 달리 도박중독의 원인과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다[17-19]. 외국에는 여성마약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0]. 마약중독 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과거 신체적 성적 학대경험 등 다층적인 이슈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과는 다른 개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21]. 여성과 남성의 중독 양상이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22][23]. 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은 치료와 재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24] 여성중독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고립화가 심화되면서 중독문제가 만성화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

마약중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엄벌주의적 관점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2][3][26-28].

위의 연구들은 마약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엄벌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의 관점에서 마약중독자를 접근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둘째, 마약중독자의 회복단계 및 유지 과정에 관한 연구[29]가 있다. 위의 연구들은 회복과정의 단계별 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여성마약중독자들의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역동적 과정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30][31]. 마약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들은 주로 NA(Narcotics Anonymous)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들이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마약중독자들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기능론적 관점에서 회복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문헌에서는 여성마약 중독자중 재발한 자들의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족한 편이다. 회복과정에서는 중독자 자신의 실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게 된다. 진정한 회복은 내적성찰을 통해 능동적 결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주체자의 위치에 자신을 내어놓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출발한다[12]. 중독에서의 회복은 자신의 전인격을 걸고 수행하는 실존작업인 동시에 회복과 재발이 반복되는 과정으로서 자신의 실존양식을 수정하기 위한 인식, 의지의 탐색이 중요하다[16].

여성마약중독자들이 재발 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재발경험을 딛고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마약중독의 재발과 회복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논의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재발과 회복과정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중독자들이 재발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재도전 의지를 발현하여 회복되며, 어떻게 회복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단약자들의 재발과정과 재도전, 그리고 회복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여성중독회복자의 욕구와 관점을 고려한 실천개입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 선정과정과 기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여성마약 중독회복자들은 과거경험을 은폐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편이기 때문에 참여자 선정과 확보가 쉽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과 자주 교류를 맺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한편 기관들과 연대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는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선정하였다. 세평적 사례선택이란 특정분야에 오래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부터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NA(Narcotic Anonymous)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여성마약중독 회복자들과 자주 교류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연구자는 지역사회에서 재활중인 마약중독 회복자들과 특히 NA(Narcotic Anonymous)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회복자들을 통해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여성마약중독자들은 그들만의 서브그룹을 형성하여 교류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눈덩이 표집방법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를 소개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약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상담과정 또는 치료과정에서 마약중독으로 판정된 경험이 있는 개인들로서 지속적인 재발을 경험하였고 현재 단약을 2년 이상 하고 있는 여성들로 한정하였다.

1.2 연구참여자 소개

본 연구에 참여한 10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1은 현재 38세로 마약문제에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으며 화장품 소매업을 하고 있다. 대마초와 엑스타시를 주로 사용했고 34세 체포되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한번 재발경험이 있다.

참여자 2는 현재 45세로 마약 때문에 35세 이혼을 했지만 지금은 남편과 재결합하여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20세에 대학동아리 M.T에서 대마초를 처음 흡입하였고 그후 향정신성 약물(러미날)을 복용한 이후로 줄곧 필로폰을 사용했다. 이후 경찰수사망에 걸려 교도소에 4개월 수감되었고 이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석방이후 한번의 재발이 있었고 지금 8년째 단약중이다.

참여자 3은 현재 31세로 미술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24세 때 처음으로 엑스터시를 하였고 이후에 필로폰을 바꾸어 줄곧 사용하였다. 한번의 재발 이후 4년째 단약을 하고 있고 형사처분은 따로 받지 않았다.

참여자 4는 현재 34세로 도매시장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25세 술집 도우미를 할 당시 동료들과 함께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마약판매도 병행했다. 이후 체포되었지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두 번 이상의 재발경험이 있다.

참여자 5는 현재 41세로 분식집 경영으로 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결별하였고 혼자 살고 있다. 20세 때 남자친구를 통해 필로폰을 처음 접하였고 29세 때 체포되어 4개월 복역후 징역 10월에 2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참여자 6은 현재 40세로 20세에 폰팅으로 만난 남성의 권유로 필로폰을 처음 시작한 이후 10년 동안 필로폰만 줄곧 사용하였다. 현재 단약한지는 11년 정도 되었고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참여자 7은 현재 40세로 14세에 부탄가스를 흡입했고 21세에 필로폰에 손을 대었다. 여러 번의 재발을 했지만 현재 단약중이다. 지금은 무직으로 생활하고 있다.

참여자 8은 현재 44세로 24세때 필로폰을 처음 손을 대었고 그 이후 15년 동안 단약을 하였지만 2년전 재발하고 현재 2년째 단약중이다.

참여자 9는 현재 43세로 38세에 필로폰을 처음 접했고 그 이후 단약했지만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지금은 재혼해서 아들 1명, 딸 2명과 함께 지내고 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한 뒤 식품판매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 10는 현재 33세로 현재 무직이며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24세에 남자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처음 접하였다. 경찰수사망에 걸려 체포되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고 현재 3년째 단약중이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개월 동안 10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60분에서 90분 정도 되었고 녹음은 면담내용은 전사하여 원자료로 만들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Giorgi[32][33]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여성마약중독자의 회복과 재활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구조를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현상학적 판단중지 작업을 거쳤다. 이는 자연적 태도에 대해 최대한 선입견을 유보하는 관점을 말한다[34].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환원(판단중지와 태도변경)의 관점에 근거하여[35] 연구자는 본질적 의미구조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이 구술한 자료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단위(meaning units)를 파악하였다[36]. 의미단위를 추출하기 위해서 여성마약중독자의 재활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번에 걸쳐 원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이후 반성적 작업을 거쳐서 학술적 언어(disciplinary Language)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일반적인 구조진술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엄격성

연구자는 연구자가 소속된 생명윤리위원회(IRB No 2-1041055-AB-N-01-2018-57)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에 임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신변 보호뿐만 아니라 인터뷰 내용 보관, 기록, 출력 복사과정까지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질적연구의 엄격성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참여자와

장기간 걸친 관계형성을 하였고 동료지지집단을 구성하여 자료를 검토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성 마약중독회복자들의 회복과 재발경험을 중심으로 이들이 부여한 의미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102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고 내용이 연결되는 의미단위를 통합하여 11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그 이후 현상학적인 관점과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거쳐서 총 4개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에서와 같다.

표 1. 마약중독여성회복자의 회복과 재발과정에 대한 하위주제와 주제

| 주제 | 하위주제 |
|----------------|-------------------------|
| 우연한 기회에 접한 마약 |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 모색 |
| | 환각의 세계에 압도됨 |
| 마약에 무너지는 몸 | 존재론적 무력감 |
| | 스스로 부여한 낙인 |
| 암흑에 갇힌 도돌이표 인생 | 심리적 자기유폐 |
| | 상류인생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자괴감 |
| 길항의 힘을 믿음 |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 |
| |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
| | 세상에 빛깔은 심정으로 살아가기 |
| | 영성에 대한 갈구 |
| | 정서적 버팀목 |

1. 우연한 기회에 접한 마약

참여자들의 마약중독 진입시기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고 대부분 우연한 기회에 마약과 마주했다. 대마초나 본드로 출발했지만 중착지는 대부분 필로폰이었다. 참여자 2는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모임에서 대마초를 처음 접한 뒤 결혼이후에도 향정신성 약물 러미널을 복용하다가 35세부터는 필로폰을 줄곧 사용했다. 본인을 일명 ‘날나리 비행청소년’이라고 묘사한 참여자 7은 가정폭력 때문에 가족을 단행했고 중학교 1학년 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부탄가스를 흡입하기 시작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찰에 적발되어 보호관찰소로 이송되었지만 그곳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통해 러미널을 소개받았고 이후 필로폰으로 갈아탔다. 참여자 3은 24세때 클럽에서 만난 유학생들의 권유로 엑스터시를 처음 접했고 이후 필로폰으로 선회했다. 참여자 5, 6, 9, 10은 남자친구를 통해 우연한 기회에 필로폰을 접하게 되면서 차츰 몸이 약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1)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 모색

참여자 2와 3, 6, 7, 9는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생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었다. 가정과 직장일로 적응이 힘들었던 참여자 6은 남자친구가 건넨 필로폰을 접한 이후 급속히 빠져들었다. 참여자 8은 난소암에 걸린 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친구와 함께 도박하우스장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곳에서 마약을 처음 접하였다.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맨날 쇼핑하는 것도 한 두 번이고. 아 너무 재미없다. 자극적인 게 없나 하다가 약에 빠지게 되었어요. 체력이 안 되니까 술을 많이 못먹겠다구요. 그래서 약에 빠지게 되었어요.” (참여자 2)

참여자 3은 엑스터시, 참여자 7은 필로폰을 처음 접한 뒤 무료한 일상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쾌감에 전을 했다.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준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었다.

“머리가 그냥 어떤 때는 빠근해요. 헤드뱅뱅이라고 하죠. 환희의 절정의 순간에 엑스터시를 하면 춤추고 노는 게 백배 천배나 기분이 좋아요. 마약을 하다보면 현실을 잊게 해 줘요. 활력이 생기고. 활력이 솔직히 가짜지만 그게 매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참여자 3)

참여자 4는 20대 초반부터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서 도우미 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마담언니의 권유로 히로봉에 손을 대었는데 한번 맞을 때마다 고단함과 피곤함을 잊게 해주었다.

“그거 맞으면 피곤함이 없어져요. 술집 일이라는 게 고되잖아요. 밤새 일을 해야 하고 근데 그리고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하면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 정상적인 회사에 다녔다면 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지요? (참여자 4)

2) 환각의 세계에 압도됨

마약에 손을 댄 뒤 구토증세 때문에 마약을 멀리했다는 일부 참여자(참여자 9, 10)를 제외하고 여덟 명의 참여자들은 마약중독에 강력한 힘이 이끌렸다. 대부분의 시간을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에만 골몰했다. 한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20만원에서 30만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들은 마약에 빠져들게 되면서 마약구입을 위해 성매매에 뛰어 들었다. 결국 참여자 5는 자구책으로 마약판매상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난 뒤 약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참여자 8 역시 성관계시 민감성을 높이는 필로폰의 마력에 의지해 남자들과 성관계를 자주 가졌다. 주변으로부터 몸을 헤프게 놀리는 여자라는 낙인을 받기도 했지만 끊으려고 해도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미 인생은 나락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손을 쓸 수 없었다.

마약을 한번 접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내 모든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꼭 사고 싶은 것이 마약이라고 했다. 참여자들은 내 삶의 99%가 마약이었고 1%는 약발이 잘 받으라고 밥을 먹는 것이었다. 참여자 7은 마약이 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심장을 한 바퀴 돈 이후 요통을 치면서 뒷목이 올라가면서 도파민을 딱 쳐주는 순간 약 2초 정도 로프1등에 당첨된 것처럼 극도의 황홀감을 경험했다. 참여자 5는 마약에 빠져든 이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전능감을 경험했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최상의 황홀감이었다. 필로폰을 하면서 내가 왜 진작 이 약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가 들었다. 그 맛을 본 이후 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마약을 구입하는데 모두 탕진하였다. 참여자 8은 남다른 성에 대한 쾌감을 맛본 이후 필로폰의 수렁에 갇혔다. 지속되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지만 약을 끊을 수 없었다. 마약을 위해 천 개를 잃으면 열 개를 겨우 얻는다고 할 정도로

마약의 폐해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마약에 손을 댄 이후 몸은 완전히 방전되었고 뻗속까지 침투한 마약의 음습한 기운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감시망에 걸리기라도 하면 교도소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약에 대한 충동은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렬했다.

“내가 남에게 팔려면 히로뽕이 어디에 좋은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맛을 여러 번 봤고 결국 나도 중독에 빠지게 되었어요. 소매를 하면 정말 이익이 짝짤해요. 피라미드 조직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자 4)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진짜 땀구멍 세포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이 그냥 뺏뺏하게 서고 총맞은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처음에는 필로폰을 하고는 밤새도록 운동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몰라요. 약을 할 때는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도 잠을 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여자 2)

“마약을 한 이후에는 세상이 다 내꺼야 너무 따뜻하고 다 내꺼 같드라구. 기분도 좋고. 팝콘을 부렸는데 정말 하늘에서 꽃이 핀 것처럼.(이하중략). 너무너무 행복한 느낌을 경험했어요.” (참여자 2)

“엑스터시가 주는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기억이 오래가고 강하게 박히고 뒷속에 약이 흐르는지 않으나 서나 약생각 밖에 안나요.” (참여자 3)

“참여자들은 특히 이쪽이 약한테 그게 주는 쾌락이 히로뽕을 하고 섹스를 하면 정말 너무 강해요. 정말 다음에는 보통 섹스를 못하게 되요. 사람을 끄는 힘이 그냥 상상을 해요. 너무 맹송맹송하고 시시해서.” (참여자 4)

2. 마약에 무너지는 몸

대다수 참여자들은 마약에 손댄 이후부터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였다. 평상시 자신이 성매매로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마약에 손을 댄 이후 쾌락의 기체에 따라 몸이 작동되었다. 참여자 1과 참여자 6과 8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환각증세가 심각해졌

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 거동이 힘들어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또한, 대인기피증, 우울증, 폭식증 때문에 몸은 급속하게 쇠잔해갔다. 참여자 7은 갈 곳이 없어 침터에서 머물렀는데 초라한 몰골로 무너져 가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참여자 6은 교도소 복역 당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당했다. 출소 당시 무일푼에다 가족과 두절된 상태였고 빌려 쓴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채무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자 죽음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참여자 3도 수면제 과다복용과 동맥을 끊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거듭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는 빛밖에 남는 게 없었다. 그러나 마약을 끊을 수 없었다.

1) 존재론적 무력감

재발이 반복되면서 대부분 참여자들은 처참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다. 집에서 마약을 하다가 가족들이 신고를 한 경우 참여자들은 배신감과 함께 이 세상에 자기를 받아들일만한 상대는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과 비참함에 사로잡혔다. 참여자 1은 주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자살시도를 여러 번 단행했다. 그리고 단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얼마 안가서 다시 마약의 늪에 빠지면서 무력한 존재를 확인했다. 참여자 4는 마음을 의탁하기 위해 성당과 절에도 가봤지만 마음에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했다. 약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다. 약을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사는가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 꼬박 6개월을 징역살았다. 실형인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여자 교도소인데 정말 거기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돈이 있어야 한다. 살인죄 이런 사람들은 재소자들도 봐주는데 6개월 잔형이들은 무지하게 갈귀요. 우리 방에 12명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나오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마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으니까 나도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나 나 같은 게 ” (참여자 1)

2) 스스로 부여한 낙인

과거 마약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했다.

참여자 4는 교도소에 두 번 복역했고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이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도소 내에서 마약사범은 일명 '파란딱지'라고 불렸다. 참여자 6은 교도소에서 마약사범으로서 겪었던 경험은 인생 최악의 고통이었다고 회고했다. 참여자 6은 전과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발 검사를 강요당했다. 마약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관리대상이라는 사실에 참괴함을 느꼈다. 경찰은 수사한다는 조건으로 예고도 없이 회사로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마약전과자라는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재발을 하게 된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술회했다. 이들은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적대감을 마음의 체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일단 리스트에 올라가면 경찰들로부터 감시를 받는 일은 다반사였고 믿었던 가족들조차 등을 돌렸다. 참여자 5는 친오빠로부터 “너를 보면 구렁이 생각이 날 정도로 징그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 도움요청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참여자 3은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으로서 원장이 마약했다는 전력을 학부모들이 알까봐 노심초사한다고 했다.

“제가 마약을 한 것을 알면 어쩌나. 학원 문 닫는 건 아닌지. 동네가 쪼그매가지고.. 지금도 불안하기는 해요. 약의 유혹이 언제 닥칠지.. 지금 4년째이긴 한데.. 내 과거가 탄로나서 지금까지 다져온 게 하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게 됩니다. ” (참여자 3)

3. 암흑에 갇힌 도돌이표 인생

참여자들은 대부분 단약이후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다시 마약의 습벽에 갇혀 재발이 반복되었다.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마약으로 가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 심리적 자기유폐

참여자 3은 돌아가는 회전문의 강한 소용돌이에 휘말

러 출입구를 찾지 못하고 맴맴 도는 존재로 자신을 표현했다. 약을 2년정도 끊고 난 이후 그동안 못 먹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기도 했다. 약을 끊은 이후 환청과 환각증세가 너무 심해서 심적 고통을 받았지만 회복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재발한 이후에 삶은 더 피폐해져 갔다. 이들은 익명의 공간에서 철저하게 자신은 은폐하는 삶을 살아갔다.

“마약은 정말 회전문 이에요. 계속 유혹을 벗어나면 다시 이문으로 들어가고 벙글벙글 돌아요. 목표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약하나 못 끊는 여자. 엑스타시에 중독된 여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잘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가 하는 생각이 들면 조금씩 지거든요. 그러다가 우울해 지고 그러다가 다시 유혹에 넘어갔지요.”(참여자 3)

2) 삼류 인생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자괴감

일부 참여자들은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면서 성적 정체성 굴욕과정을 수차례 겪었다.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은 사라지고 남성들이 원하는 몸으로 길들여져야 했다. 과거 마약중독에 길들여졌던 그 고통이 반복되었다. 이들은 마약중독영역 밖에서는 자신의 강점과 고유한 능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단약을 한 이후에도 총체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았다. 지속적으로 심리 정서면에서 씻을 수 없는 상흔이 각인되면서 이를 잊기 위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대었다. 일찍부터 마약에 길들여진 이들은 지지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차별과 압력을 받아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포자기라고 할 수 있죠. 뭐 서방이라고 만난 게 노름꾼이고. 버려진 인생. 보육원에 있을 때 엄마아빠 있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지금은 이혼녀가 되니까 자포자기가 된 상황에서 다시 재발을 한 거지요”(참여자 5)

4. 길항의 힘을 믿음

참여자 6은 마약중독자들에게 회복이란 단순히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질적인 전이가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약 자체를 끊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의

현재모습을 받아들이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 자체가 곧 회복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단약을 통해 세상과 고리를 끊고 싶어하는 욕구가 솟았다. 세상과 동떨어진 유배지에서 머물면서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이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회복을 원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벼랑 끝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다. 참여자 1은 마음챙김을 통해서, 참여자 4와 6, 7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의식을 세웠다. 참여자 5와 8은 마약친구들과 단교했고 단약모임에만 참여하면서 세상에 고리걸기를 시도했다. 회복한 참여자들은 가족과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회복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1)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

자신 스스로 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체득하면서(참여자 5)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대처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서(참여자 8)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참여자 4와 6, 7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살려 마약중독자 회복을 돕는 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사람 몸 받는 게 거북이가 것도 눈이 먼 거북이가 그냥 바닷가를 헤매다가 자기 모가지에 딱 맞는 나무를 만나 끼우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 거지요. 제일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만이라도 나를 사랑하겠다. 그럼 내 귀한 몸에 다시 주사비늘 꽂아선 안 된다.”(참여자 5)

“마약은 중독된 머리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공부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고 나의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참여자 8)

“후리가리라고 하죠. 집중단속이 오니까 깡그리 굶어가요. (중략) 약 좀 했다고 징역 2년을 맞았는데 판사가 징역 10월에다가 집행유예를 주어서 4개월 만에 풀려났어요. 교도소라는 게 사람 갈 데가 못돼요. 세상하고 단절되니까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너무 내 상처

를 끊었구나. 출소하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2)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회복과정에서 삶을 일치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거나 진실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 어찌 보면 교도소 생활은 위기이자 기회가 되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용기를 내어 마음 한켠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어두운 자아와 직면하는 용기를 냈다. 참여자 3은 부모가 힘들게 마련해 준 대학 등록금과 용돈으로 약을 사는데 모두 탕진했던 자신과 조우했다. 친한 친구의 자살소식을 듣고도 약물에 빠져 장례식장도 찾지 않았고 애도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과거의 자아와 화해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참여자 5는 자신의 인생을 ‘백지수표를 받은 인생’으로 묘사했다. 망가진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각오로 새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였다.

“인생도 좀 많이 인생관도 바뀌었어요. 약에 중독돼 갖고 헤멜 때 허우적거릴 때 마약은 원수죠. 진짜. 지독한 원수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방주사 같구나 라는 생각도 해요. 예방주사를 너무 호되게 맞아 갖고 그렇잖아요. 나도 어릴 때 우리 불주사라 그래요 그거 한번 잘못 맞으면 통통 붓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고 똑같다 생각했죠.” (참여자 5)

“마약의 수렁에 빠졌다면 수렁 밑바닥까지 빠진 거죠. 항상 통장은 마이너스였어요. 1000만원을 벌면 1200만원이 마약 값으로 나갔지요.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벌지만 다 마약 값으로 다 나갔다. 근데 아버지가 허리 다쳐서 일을 못하고 어머니는 파출부를 나가는 상황에서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나는 여전히 마약에 빠져 있었어요. 인간성이 없어진 거지요”(참여자 4)

3) 세상에 빚갚는 심정으로 살아가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족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회복을 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마약의 유혹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참아냈다. 참여자 7은 수감된 딸을 위해 손수 만든 반찬을 싸왔지만

교도소내 반입이 금지되자 철창 밖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약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했다.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드빚을 혼자 갚았다. 참여자 4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참여자 6은 마약 전과를 알고도 자신을 믿고 신뢰해 준 직장상사, 참여자 8은 회복될 때까지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아들과 남편이 회복의 단초가 되었다고 했다. 이제는 그들이 부여한 힘을 발판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저는 밤에 일을 하니까 낮에는 항상 쉬어야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마음만 있어요. 지금 사이버로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추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노숙인들 이런데 정기적으로 10만원을 보내고 있어요. 제 형편에는 과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약을 끊고 나니까 먼저 부모님이 눈에 들어오고 형제들이 눈에 들어오고 주위에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사람들 진짜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사정이 눈에 들어와요.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참여자 4)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한 모습을 늘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건 나에게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나를 배제하지 않고 이상하게 보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는 경험은 나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경험은 나를 살리는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6)

4) 영성에 대한 갈구

회복자들은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솟아오를 일만 남았다는 낙관론적 소망을 갖고 있었다. 하늘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날개를 키우고 날개 칠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참여자들은 자기회복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절(참여자 4)이나 교회(참여자 2, 3, 8) 등 마음을 의지할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마약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붙들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잡고 싶었다. 그만큼 살고자 하는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5는 약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잘나라고 판단하고 내적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면서 원 상태로 복귀할 수 있었다. 참여자 3은 '마음을 특 옆으로 치운 것은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고 약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면서 위기를 넘겼다고 했다. 참여자 2는 항상 동행하는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참여자 8은 갈망이 올라올 때마다 12단계에서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신을 만난다고 했다.

“주변에 유혹은 항상 있지요. 그리고 일단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 전체에서 나를 사랑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저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개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101개가 된다. 항상 변명거리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적고 있어요” (참여 3)

“신이시여 저는 연락합니다. 도와주세요. 반드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참여 8)

5) 정서적 버팀목

참여자들은 마약은 혼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회고했다. 자신에 대해 편견 없이 대하는 전문가들과 마약회복자들은 참여자들에게 회복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 이들과 허물없이 교류하면서 '뽕순이' 또는 '약쟁이'라는 주변의 편견과 맞설 수 있었고 익명의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당당히 내 이름 석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희망을 얻어보았다. 참여자들은 마약을 끊기 위해서 마약친구들과 과감하게 단교하였다. NA단약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애썼다. 참여자 3은 회복자 모임에서 자기 조절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꾸준한 모임에 참여한다고 했다.

“회복자들과 같이 노력하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합친 힘은 우리를 유혹하는 힘보다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회복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3)

“회복자모임에서는 격려 받고 지지가 되니까 제일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위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을 할 뻔한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저럴 때 이렇게 해야 겠구나 배우기도 하고” (참여 3)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단약이후 재발을 반복하다가 회복중인 여성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마약중독회복자들을 위한 공적,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체계의 연결과 지역사회 재활 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10명의 여성 마약 회복자들은 수차례의 재발과 회복과정을 거치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였고 주변의 사적지지체계가 붕괴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재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근거지에서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았다. 이들 주변에는 교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거의 허물을 받아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지지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청소년기나 20대 초반에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해 청년기 대부분을 마약에 탐닉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했다. 단약한 뒤에도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소일거리 없이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꼈고 주변의 편견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휴지기 동안 재발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관심과 욕구에 기초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마약여성중독자를 위한 성민감적 관점에 근거한 역량강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은 재발과정에서 단마약의 의지를 확인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은 자신의 존재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딸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재건하려는 의지가 남달랐다. 자신을 '흠이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면서도 타자를 온전히 떠안으려는 실존적 자기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추동력은 주변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병리적 접근보다는 강점관점에서 이들의 잔존 자원을 발견하고 장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재적응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일회성 접근보다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회복의지를 발현시켜 과거를 긍정적으로 의미있게 해석하는 스토리텔링 접근 그리고 실존 프로그램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마약회복자들은 회복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방법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마약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심각한 갈망증세로 실패를 거듭했다. 이 기간에는 병원에서 해독과 단약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퇴원 이후에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접근과 개인의 욕구를 고려한 심리재활 치료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남성적 치료중심 시스템으로 중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차별화된 개입방법들에 대한 실천지식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으로서의 자기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 개입과 성민감 모델(Gender-Responsive Model)에 근거한 역량강화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중독자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인간중심적 치료접근을 원했다. 특히, 회복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특히 영성(spirituality)은 여성마약중독자의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변모되듯이 이들에게 질적인 전이과정이 발현되었다. 영성은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고 마약으로부터 근절하려는 의지를 생성하는 힘을 갖게 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르크(DARC)와 같은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다르크는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약물중독재활센터로서 마약중독 회복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사회적응과 생활기술능력을 습득하고 중독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으면서 재활의지를 복돋울 수 있다. 특히, 동료상담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자 6은 자신을 향한 낙인의 시선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여전히 작동했다고 회고했다. 참여자 6은 신원조회 중에 과거전력이 드러나 직위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여러 번 받으면서 좌절감을 많이 경험했다. 정신보건 또는 중독분야에서 이들의 과거 경험을 살려 중독자를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은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책임의식이 부활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강선경, 양동현, 문진영, “마약중독자들의 재발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교정연구, 제70권, pp.89-114, 2016.
- [2] 박성수, “마약류 중독자 강제치료 현황과 대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3권, 제1호, pp.1-24, 2013.
- [3] 이인영, “특집 중독과 형사사법: 약물중독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처우에 관한 고찰: 뇌과학에 의한 약물중독의 인식변화와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학회, 제26권 제1호, pp.59-106, 2014.
- [4] 오창순, *알코올 중독의 재발예방을 위한 지침*,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3.
- [5] 이근무, *알코올중독자의 재발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6] 이근무, *약물 의존자의 빠져 있음의 구조와 본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7] 최은미, *NA 자조모임을 통한 마약의존자의 회복경험 탐색*, 팽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8] 윤명숙, 이준석, 지홍, 김성혜, “알코올중독자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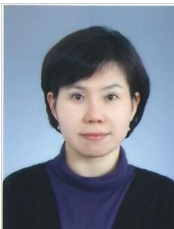
- 기 가정폭력 외상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우울, 재발위험성의 매개효과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3호, pp.87-115, 2012.
- [9] 최송식, “한국사회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예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48권, pp.307-348, 2013.
- [10] 강준혁, 이혁구,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과 실존체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제54집, pp.185-219, 2019.
- [11] W. White, *Toward a New Recovery Movement: Historical Reflections on Recovery, Treatment and Advocacy*, Recovery Community Support Program Conference, 2000.
- [12] 강준혁,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과 실존체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3] 백형의, *약물중독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4] 최송식, 최윤정,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통합의 경로분석,” 재활복지, 제14권, 제4호, pp.225-255, 2012
- [15] 강선경, 문진영, 양동현, “마약중독에서 탈출한 회복자들의 자기 삶 재건에 대한 연구,” 재활복지, 제20권, 제1호, pp.87-111, 2016.
- [16] 이근무, 강선경, 탁평곤, “단도박자들의 도박중독행위 재발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3권, 제2호, pp.5-31, 2015.
- [17] R. Boughton and O. Falenchuk, “Vulnerability and comorbidity factors of female problem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Vol.23, pp.323-334, 2007.
- [18] N. M. Petry, “A comparison of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 treatment-seeking pathological gamblers,” *Gerontol*, Vol.42, pp.92-99, 2002.
- [19] S. Rizeanu, “Pathological Gambling and Depressio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78, pp.501-505, 2013.
- [20] A. Guise, D. Horyniak, J. Melo, R. McNeil, and D. Werb, “The experience of initiating injection drug use and its social context: a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and thematic synthesis,” *Addiction*, Vol.112, pp.2098-2111, Jul. 2017.
- [21] M. Wendee, W. W. Wechsberg, S. G. Craddock, L. Robert, and R. L. Hubbard, “How Are Women Who Enter Substance Abuse Treatment Different Than Men?: A Gender Comparison from the Drug Abuse Treatment Outcome Study (DATOS),” *Drugs & Society*, Vol.13, 1998.
- [22] 우재희, “남·여 알코올 중독자의 외상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298-307, 2014.
- [23] L. Nelson-Zlupko, E. Kauffman, and M. Morrison Dore, “Gender Differences in Drug Addiction and Treatment: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 with Substance-Abusing Women,” *Social Work*, Vol.40, No.1, pp.45-54, Jan. 1995.
- [24] 채정아, *단도박의 회복유지과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5] 강성군, *도박 행동과 문제의 성차: 내국인 카지노 출입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6] 김란중, *마약류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실태에 대해*,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27] 박진실, “마약류사범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양법학회*, 제19권, 제3호, pp.187-220, 2017.
- [28] 안상원, “마약류 사범의 동향 및 통제전략에 관한 고찰,”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9권, 제5호, pp.87-109, 2019.
- [29] 백형의, 한인영, “약물중독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경험 : 세상에서의 되살이 경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2권, 제3호, pp.151-177, 2014.
- [30] 김연실, 김석선, “약물중독자를 위한 자기초월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혼합설계연구 적용,” *정신간호학회지*, 제26권, 제1호, pp.1-13, 2017.
- [31] 윤혜진, “집중명상 프로그램이 마약중독자의 갈망, 자아존중감 및 단양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불교학보*, 제75권, pp.285-313, 2016.
- [32] A. Giorgi,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28, No.2, pp.235-260, 1997.
- [33] A. Giorgi,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43, No.1, pp.235-260, 2012.
- [34]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현상학과 현대철학, 제24권, pp.91-121, 2005.
- [35] 임해영, 김학주,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영성 체험에 관한 연구 - 기독교·가톨릭인 회복자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1호, pp.98-112, 2018.
- [36] 최미란, 조희선, "알코올중독자 남편을 둔 여성배우자의 자아주체성 회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pp.576-589, 2019.

저 자 소 개

김 진 숙(Jin-Sook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중독,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